

22.10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

1

금융시장 반응

22.10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

- ◆ (정책결정) ① 정책금리 75bp 인상(수신금리 0.75% → 1.50%) ② TLTRO III 대출금리 조건 변경* ③ 자산매입(APP, PEPP) 재투자 종전대로 유지 ④ 필요지준부리 준거금리 변경(MRO → DFR)

* 대출금리를 22.11.23일부터는 대출 잔여기간중 DFR금리 평균으로 적용하여 초과지준 이율(DFR)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조기상환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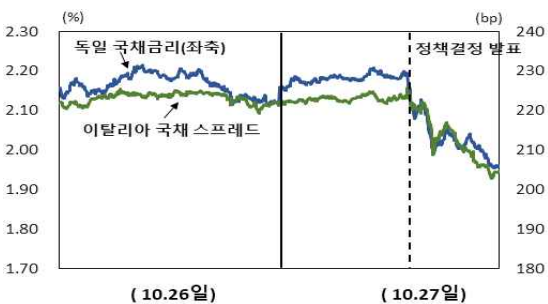
- ◆ (기자간담회) ① APP 자산감축(QT) 관련 핵심원칙은 다음 회의(22.12월) 시 결정 ② 성장 둔화세가 22.4/4~23.1/4분기중 심화될 전망

- 독일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회의 결정문*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하락(10년물 1.96%, 전일대비 -15bp)하였으며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QT정책의 예상외 미발표 등으로 축소(202bp, 전일대비 -18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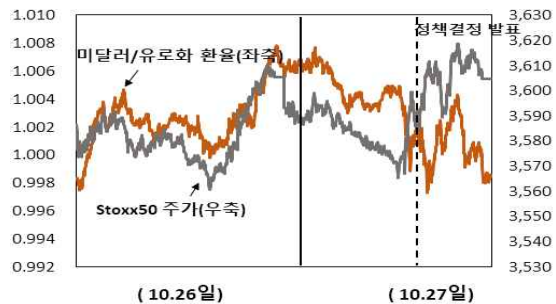
* 최근의 큰 폭 금리인상이 완화된 통화정책 여건을 축소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, 금리인상 회의가 수 차례(several meetings) 열릴 것이라는 9월 회의시 문구가 삭제됨

- 유로화 환율(US/€)은 75bp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화긴축기 조 완화 기대감 등으로 하락(0.9978, -1.04%)하였고 주가(Stoxx 50)는 전일 대비 보합(3,604, -0.02%, 런던 시각 17:00시 기준)

독일 국채금리(10년물) 및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¹⁾



유로화 환율 및 주가(Stoxx50)



주 : 1)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- 독일 국채 10년물
자료 : 블룸버그

작성자 : 조재현 차장, 반진희 과장

- ECB의 75bp 금리인상 및 TLTRO 대출조건 변경은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였으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평가, 향후 성장둔화 우려 언급 등이 다소 dovish했던 것으로 평가
 - Lagarde 총재가 은행대출태도 서베이 결과를 언급하며 금융여건 긴축을 우려하고, 통화정책 파급시차에 유념하여 운용중임을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큰 폭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(BNP)
 - 물가 위험을 주로 강조한 이전과 달리 경기하방 위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다음 회의시 물가 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성장둔화 우려가 물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키 위한 것으로 보임(RBC)
-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은 12월 50bp, 내년 2월 25bp 인상을 전망하는 가운데, 선도금리시장에 반영된 최종 정책금리 수준(ESTR 기준)이 2.56%로 전일(2.82%) 대비 26bp 하향됨
 - 다만 일부에서는 유로존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 위험,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책목표간 괴리 심화 가능성 등으로 12월 회의시 75bp 금리인상을 전망(Commerz)
- 한편 향후 독일 국채금리는 중기적 관점에서 최근의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dovish pivot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지속 우려, 독일의 에너지 위기대응 관련 국채발행 증대, 내년중 양적긴축 실시 가능성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다소 우세(RABO)
 -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위기, 유로지역 성장둔화 우려, 미연준에 비해 뒤쳐진 통화긴축기조 등으로 유로화가 미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(BAML, JP, GS)